[별첨 1] 해외파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redacted]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학교명	University of Guelph
	파견 시기	[2026]학년도 [여름] 학기	파견 기간	4주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Listening and Speaking	주로 일본인 친구들과의 토론이나 스몰토킹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Reading	본문 읽고 문제 풀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Writing	글쓰기 과제가 있고, 서로의 글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기도 합니다.	

체험수기

Ⅰ.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궬프대학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립 대학교입니다. 학교 내부에 운동시설이나 식당이 잘 되어 있어 캠퍼스를 벗어나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내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많아서 등하교시에 우리나라와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2. 파견 전 절차

-국제협력팀에서 업로드 한 단기 파견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확인하였고, 어학점수를 제출하였습니다. 선발이 된 후에는 파견대학에 등록하고, 등록비와 학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eTA와 eSIM, 여행자보험 등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고, 파견 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했고 그에 따른 수준별 분반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숙사는 5명이 3층짜리 기숙사 하나를 사용했고, 다섯 개의 각방과 두 개의 화장실과 욕실, 하나의 공용 주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담당자분의 성함은 모르지만 문제가 생겼을 시 +1 647 960 1628로 전화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Ⅱ.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Listening and Speaking, Reading, Writing 총 세 개의 과목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모두 친절하시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끌어주셔서 모든 강의를 추천합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레벨테스트 결과 가장 낮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모든 수업과 과제가 영어로 시행되기 때문에 약

간의 부담은 있었습니다. 4주간의 수업을 마치고 나서 영어실력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외에도 시내에 나가서 현지인들과 대화해보고,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나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올라간 것 같습니다.

3. 학습 방법
-수업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느낀 것은 토론 위주의 수업이 많았고, 과제도 서로의 과제물에 피드백을 남기는 등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Ⅲ.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수건, 옷걸이, 헤어드라이기를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담요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름에 다녀왔지만 이불이 얇은 이불이라 밤에는 조금 쌀쌀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지 물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비싼 편이지만, 마트의 식재료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끝통, 통신 등)
-학교 근처에는 외식을 할 만한 곳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기숙사를 같이 쓰는 친구들과 장을 봐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외식이 하고 싶은 날에는 다운타운에 나가서 사먹기도 했습니다. 궬프 내에서는 버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카드를 주셔서 장을 볼 때나 다운타운을 나갈 때는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주말에는 주로 토론토에 다녀오거나, 스톤 로드 몰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한 체험 활동 중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온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프로그램 비용: 3,665 cad / 항공료: 약 200만원 / 보험료: 약 1만원
식비 및 개인 경비: 1,600 cad

Ⅳ.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캐나다라는 낯선 나라에서 한 달 동안 지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립심이 많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소중한 친구들을 사귀어 왔다는 것이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4주 간 배운 것을 토대로 공부하여 토익 스피킹 자격증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계기로 새로운 환경이나 해외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다양한 경험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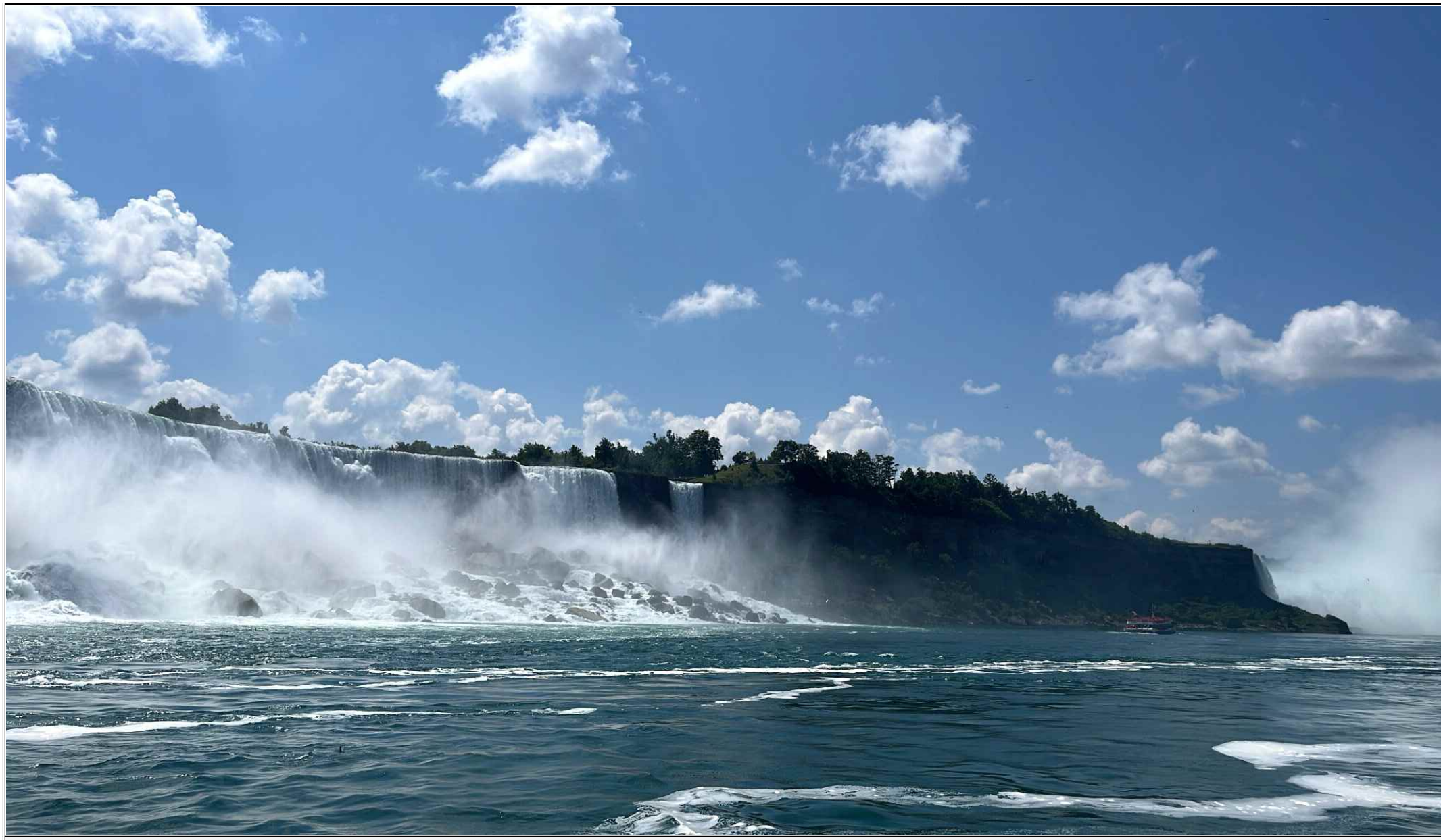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두렵고 낯설더라도 수업 외에 나가서 영어로 많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솔직하게 영어 실력이 많이 상승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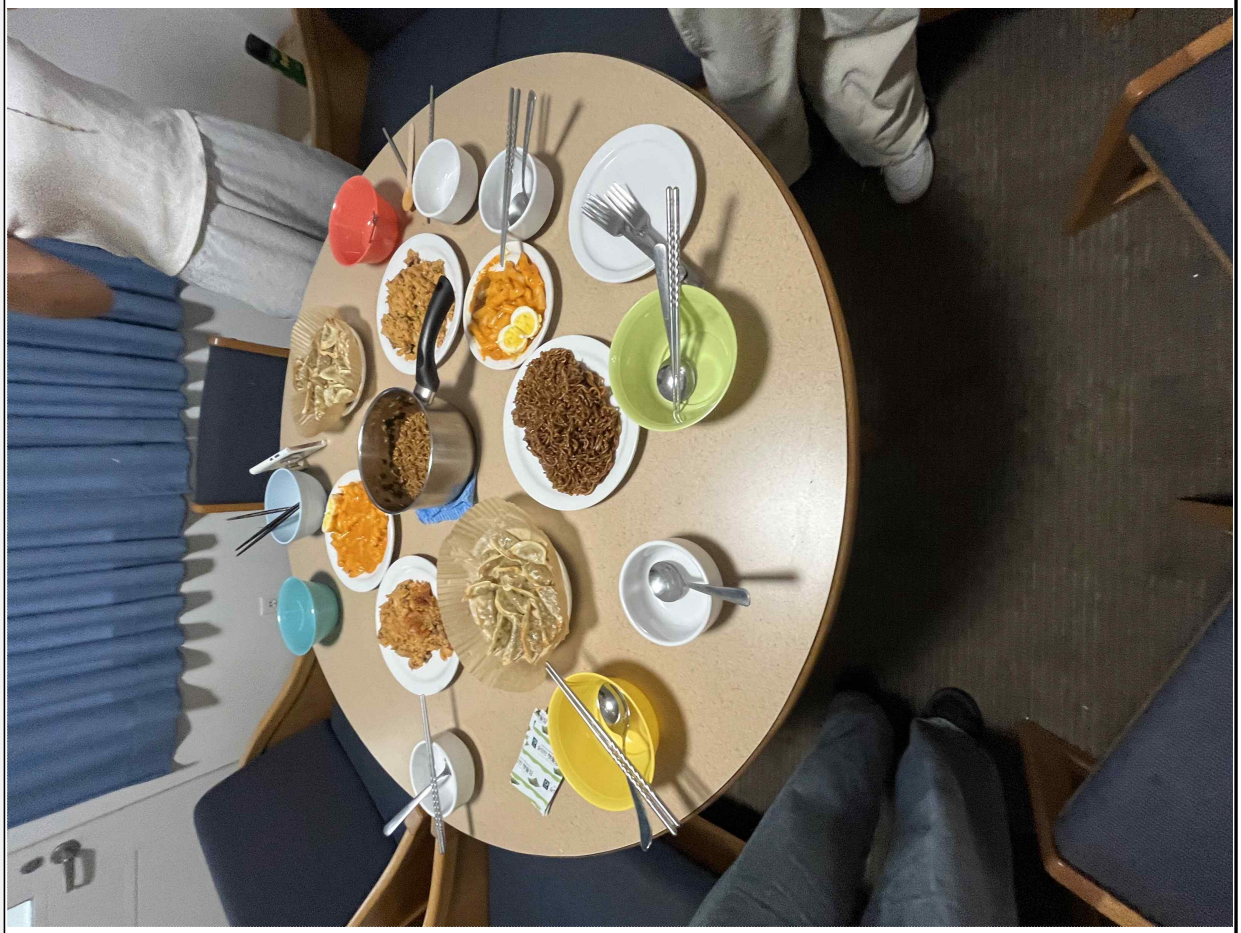
4주 동안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잠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주라는 기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교 여행도 최대한 많이 다녀보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많은 교류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기타사항

Ⅴ.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오리엔테이션 날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일본인 친구들을 기숙사로 초대한 날입니다.

[별첨 1] 해외파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redacted]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학교명	궬프대학교
	파견 시기	[2026]학년도 [여름]학기	파견 기간	1개월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Listening & Speaking	말하기, 발표	
		Reading	책 해석	
		Writing	문법	

체험수기

Ⅰ.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캐나다 온타리오주 궬프에 위치한 궬프 대학교(University of Guelph)는 캐나다 내에서도 캠퍼스 분위기가 평화롭고 친근하기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토론토 도심과 버스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 주말이나 여가 시간에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등 인근 주요 지역이나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캠퍼스 전체가 치안이 매우 잘 되어 있고 자연 친화적이어서 공부하고 생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2. 파견 전 절차

- 비자 및 기본 서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였기 때문에 캐나다 eTA(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았으며, 미국 여행을 염두에 두고 미국 ESTA도 함께 사전 신청해 두었습니다.
- 보험 및 항공권: 파견 필수 요구조건에 맞춰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고, 한국-토론토 왕복 및 이동 일정에 맞춘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 레벨테스트 및 출국 준비: 파견 전 현지 어학/수업 프로그램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출국 전 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 결제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 방법

한국에서 미리 수강과목을 개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에 도착한 후 사전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과 과목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파견교에 도착해서야 이 시스템을 알게 되었는데,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본인의 반이 정해지므로 테스트를 볼 때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숙사: 학교 측에서 무작위 배정(랜덤) 방식으로 배정해 주었으며, 한 구역/플랫당 5명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였습니다. 무작위 배정이지만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현지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Ⅱ.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수강 과목: Listening & Speaking, Reading, Writing (Intermediate 레벨 배정)

- 수업 특징 및 추천 이유:Intermediate 레벨 수업을 들었는데, 실생활과 학업에 필요한 언어 영역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룹니다. 다만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이 정해지므로, 후배들은 레벨테스트를 볼 때 정말 진심을 다해 길고 자세하게 답해서 될 수 있으면 본인 실력보다 너무 낮은 레벨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레벨이 너무 낮으면 실제로 배워가거나 얻어가는 게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초반에는 스스로 영어가 부족하다고 느껴 망설이거나 한국인 파견생들과 붙어 다녔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틀리더라도 막 뱉어서 말하는 것이 영어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틀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입을 떼기 시작하면서 Listening과 Speaking 실력이 실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3. 학습 방법 - 수업 시간 내 적극적인 대화: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한국인 학생들과만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실전 영어 사용: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을 과감하게 실생활(마트, 카페, 펍, 레스토랑 등)에서 계속 사용해 보며 언어에 대한 감을 익혔습니다. Ⅲ.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 입국 시 필수 물품: 여권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입국 심사나 확인을 위해 기숙사 및 학교 관련 승인 서류는 꼭 실물로 프린트해 가길 권합니다. - 카드 및 현금: 카드는 반드시 2~3개 이상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카드가 막히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 결제를 사용하지만, 투어를 가거나 간혹 현금만 받는 가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상용 현금으로 10만 원(CAD $100 정도)을 환전해 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 현지 물가: 외식 비용(세금 및 팁 포함)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대신 마트 물가는 저렴해서 대부분 기숙사에서 직접 요리해 먹었습니다. 외식비는 비싸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고 현지 음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므로 적절히 투자해 보길 바랍니다. 마트에 가면 다양한 치즈, 고기, 빵, 과자 등이 있으니 다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 의료: 다치지 않아서 현지 병원을 이용할 일은 없었으나, 생리통약이나 소화제 같은 기본 비상약은 한국에서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단, 타이레놀 같은 상비약은 현지가 종류도 더 다양하고 사기 편해서 현지 구매도 괜찮습니다. - 은행/교통: 현지 은행 인출 시 수수료가 비싼 편이라 환전해 온 현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의 경우 궬프 내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는 학교에서 기본 제공해 주어 편하게 다녔습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 가는 교통비는 비싼 편이니 일정을 잘 판단해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신: '프리티 캐나다'를 통해 개통해 사용했습니다. 한 달에 4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데이터가 매우 넉넉해서 만족스럽게 사용했으며 강력 추천합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궬프가 조용한 시골 마을 느낌이라 대도시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많습

니다. 영화관, 공원, 카약 체험 등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의 경우 화요일에 할인을 받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주말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트립, 원더랜드(놀이공원), 엘로라(Elora) 버스 여행, 카약 타기, 펍 방문 등 다양한 현지 활동을 알차게 즐겼습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

〈사전 지출 경비(출군 전/한국 결제)〉

항목	금액	비고
한국 -〉 토론토 항공권	900,000 원	경유 1번, 중국동방항공 이용
토론토 -〉 뉴욕 항공권	310,000 원	개인 여행 일정
뉴욕 -〉 한국 항공권	880,000 원	귀국 항공권
광주 -〉 인천공항 리무진	47,800 원	
프로그램 비용 (학비+SSF)	CAD $2,435	학비 $2,010 + SSF $425
숙소비(기숙사)	CAD $1,030	
기타 제반비용	CAD $200	행정, 수수료, 성적표 발행 등
등록비	CAD $200	사전 등록 비용
보험료	37,000 원	
비자 발급비 (캐/미)	CAD $7 / US $41	
통신비	CAD $39.55	1개월
뉴욕 숙소비	418,344 원	
교재비	5,500원	수업 교재

- 교재비는 강사 by 강사라서 이건 프로그램 가서 정확히 알 수가 있음 1달 과정이라 스킵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었음

〈현지 체류 생활비(1달)〉

카테고리	지출 금액 (CAD)	비고
식비 및 장보기	CAD $812.50	외식 및 카페, 마트 장보기(식재료, 생필품 포함) 비용
여가 여행 유흥	CAD $446.42	현지 문화 체험 및 인근 지역 여행, 유흥 비용
쇼핑 및 생필품	CAD $318.13	의류, 잡화, 개별 생필품 구매 비용
교통비	CAD $32.00	타 지역 이동 및 개별 교통 지출
합계	CAD $1,646.59	약 170만원 소비

Ⅳ.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외국에 나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틀리더라도 일단 막 뱉어서 말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단기간에 성숙해졌습니다.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언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크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1달이라서 영어 실력이 훌쩍 오른 건 아닙니다. 기대하려면 1년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식견, 편견을 부셔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기 전에 꼭 영어회화 연습은 하고 오길 추천드립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귀국 후 파견 동안 경험한 실전 영어 표현과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꾸준히 원어 회화 및 학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캐나다 및 미국 체류 경험을 계기로, 향후 해외 인

	턴십이나 글로벌 환경에서의 진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 레벨테스트는 진심으로: 수강신청이 테스트 결과로 자동 배정되므로, 초반 레벨테스트를 꼭 길고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본인 실력에 맞는 반을 배정받으세요. - 한국인끼리만 다니지 말 것: 파견 초반에 한국인 파견생들과만 붙어 다니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으니 무조건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현지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세요. - 현지 생활 즐기기: 마트에서 파는 다양한 식재료로 요리도 해보고, 화요일 할인 영화관이나 카약, 근교 공원, 엘로라 버스 여행 등 궬프에서만 할 수 있는 소소한 체험들을 꼭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기타사항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결제 오류나 분실에 대비해 꼭 2~3개 이상 챙기시고, 현금은 10만 원 정도만 환전해 오면 비상용으로 충분합니다.

[별첨1] 해외파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적 사항	[redacted]		
파견 정보	수강과목개요	과목명	과목설명(간략)
		Intermediate Listening & Speaking	'Skills for Success' 영어 교재를 활용한 listening & speaking 관련 학습 진행, 팀별 ppt 발표 과제
		Intermediate Writing	'University Success' 영어 교재를 활용한 writing 수업, 교재 속 학습 활동 진행 및 essay 작성
		Intermediate Reading	'Inside Reading 2' 교재를 활용한 Reading 수업, 본문 내용 읽고 요약 및 설명

체험 수기

Ⅰ.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2026년 하계 단기 어학연수로 Canada 동부 지역에 위치한 Guelph 지역에 있는 University of Guelph로 파견을 나갔다. Toronto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었고, 농업관련 학과가 특히 유명한 대학교였다. 특히 학교 내부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는데, 스쿼시, 배드민턴, 요가, 필라테스 등 대다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 외 클라이밍, 헬스장 등 몇 가지 운동은 유료였음에도 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다. (헬스장은 1달에 15달러였다.)

2. 파견 전 절차

선발이 확정되면 학교 주관으로 1개, 어학원 주관으로 1개 총 2개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개설되고, 해당 채팅방에 입장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학교에서 안내하는 채팅방에서는 어학연수 관련하여 주의사항, 간단한 OT, 장학금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실제 파견될 대학교에 관한 자세한 정보(등록금, 항공편 날짜, 기숙사 관련 내용 등)들은 어학원에서 안내한다. 프로그램 신청비, 등록비, 항공편등을 결제 하고, 제때 필요한 정보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파견 날짜가 가까워지면 어학 프로그램 신청 방법, 파견 대학 등록 방법등에 대해 알려준다. 캐나다를 입국하기 위해선 ETA 신청이 필수였고 eta는 어학원 안내에 따라 혼자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 방법 또한 어학원 오픈채팅방에서 자세히 알려준다. 공지 되는 내용만 제대로 읽고 안내된대로 수행한다면 무리없이 진행 가능하다. 구엘프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신청 및 신청비 결제 후 학생ID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학번을 통해 로그인한 후 프로그램 등록비를 결제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된다. 추가적인 질문을 원할때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개인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물어보면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기숙사는 하우스 하나에 5개의 방이 있었고, 5명의 학생들이 각각 배정받은 방을 사용했다. 같은 학교에서 온 학생들끼리 같은 하우스로 배정해주었고, 다른 하우스들은 4개의 방이 있어 4명이 같이 살았지만, 내가 지낸 곳이 특별히 5개의 방이 있어 5명이 같이 살았던 하우스였다. 기숙사 체크인 시 각자 열쇠꾸러미를 받게 되는데 하우스 열쇠1개, 개인 방 열쇠 1개, 학교 세탁실/레지던스 데스크 빌딩 입장할 때 사용하는 태그식 열쇠 1개로 주로 3개의 열쇠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 방은 침대 하나와 침구, 옷장, 선반, 서랍장, 책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옷걸이는 두개 있었다.)

Ⅱ.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레벨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반이 결정되었다. 테스트는 빈칸채우기, 문법, 리스닝, 리딩과 관련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어떤 반에 배정되었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수업 내용, 난이도, 과제, 시간표가 달랐다. 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항상 오후 12:30 – 4:20 으로 약 4시간에 걸친 수업을 수강했다.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영어를 사용하였고, 어학연수를 온 일본인 친구들과 대화 할 때도 주로 영어를 사용했기에 한국에서 보다는 확실히 영어를 자주 사용했다.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수업은 좀 더 자연스러운 원어민 표현들을 알려주는 회화 중심의 수업이였으나, 실제 수업은 영어 교재를 사용한 문제풀이식 수업이여서 아쉬움이 느껴졌다. 따라서 개인적인 추가 학습 없이 수업을 듣는 것 만으로는 영어회화 표현의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항상 내가 사용하는 표현으로만 말하게 된다. 외국어 습득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3. 학습 방법

수업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팀별로 토론하며 교재 속 활동 문제를 풀이하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다른 학생들과 토의하며 해결할 수 있었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듣는다면 과제나 수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다양한 영어 회화 표현을 공부하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Ⅲ.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입국 시 영어공부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 허가증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미리 핸드폰에 저장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칫솔 등 기본적인 세면도구는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챙겨가야한다. 화장지는 화장실에 기본적으로 2개 정도 있었고, 그 후 데스크에 요청하면 한번에 최대 2개씩 제공해주었지만 가끔 가다 주지 않는 분들도 있었기에 넉넉하게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헤어 드라이기는 전압차를 고려하여 프리볼트 제품으로 챙겨가야한다. 현지에

서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가장 저렴한 제품이 부피가 크고 38달러 정도였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상비약 등도 챙겨가면 좋다. 캐나다는 여름 햇빛이 엄청 강하고 밝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필수였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게 느껴졌다. 구엘프 지역에 한인 마트는 없고 아시안마켓만 있기에 즉석밥/참치캔 등 한식 식품 몇가지는 챙겨가면 유익하다. 외식은 식당마다, 메뉴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20달러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마트 기준 식재료들은 할인 없으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2배로 생각하면 된다. 구엘프 지역이 속한 온타리오 주의 경우 적혀 있는 금액의 13%가 세금으로 추가되지만, 6개 이상의 베이커리 제품 혹은 가공되지 않은 과일, 야채, 고기 등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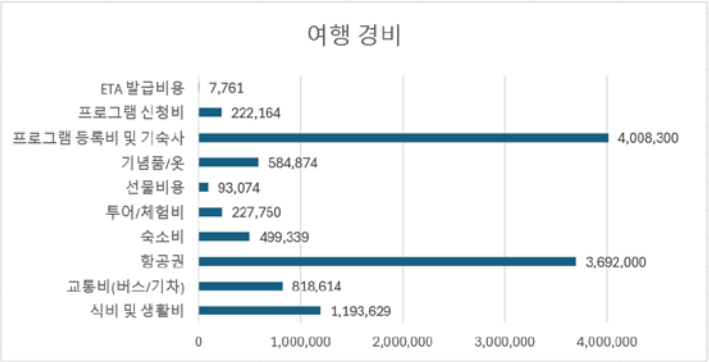
학교 내 구내 식당이 잘 되어있는 편이다. 무게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것도 있고, pizza pizza, subway등 브랜드가 입점 되어 있어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고, 학식 장소가 잘 되어있어 학교에서 식사하기에 큰 무리는 없다. 학교에서는 한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교통카드를 제공해주었고, 교내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근처 쇼핑몰 / 마트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었다. 토론토까지도 편도2-3시간 걸려 갈 수 있었는데, Go bus 라는 버스를 두번 환승해서 가거나, Guelph 지역 다운타운까지 나가 Go train이라는 기차를 타고 토론토 Union station 까지 한번에 갈 수 있었다. 기차는 대략 2시간 간격으로 있었다. 한달 어학 연수 이후 2주간 캐나다에 더 머물 예정이였기에 phonebox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현지 통신사에서 월 구독을 진행했다. 검색 당시 캐나다 유학생들, 캐나다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통신사여서 통신 장애 걱정이 덜하다 느껴졌고 가격 또한 합리적이여서 선택했다. 나는 40일 사용, 총 데이터 사용량 30GB 정도, 현지 번호 발급 가능한 조건으로 44달러 정도 결제 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7월 1일 캐나다 데이를 맞이해 Guelph 지역 Riverside Park에서 피크닉과 불꽃놀이 구경을 할 수 있었다. 푸드트럭, 판매 부스, 간이 화장실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불꽃놀이가 끝난 후 학교까지 바로 가는 임시 직행 버스가 운영되어 편하게 즐길 수 있었다. 수업이 월요일-목요일까지였기에 금,토,일 동안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나는 퀘백, 몬트리올을 추가로 여행하였다. 퀘백까지는 왕복 비행기로, 몬트리올은 Via Rail 기차를 이용해 다녀왔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식비 및 생활비	교통비(버스/기차)	항공권	숙소비	투어/체험비	선물비용	기념품/옷	프로그램 등록비 및 기숙사	프로그램 신청비	ETA 발급비용
1,193,629	818,614	3,692,000	499,339	227,750	93,074	584,874	4,008,300	222,164	7,761



IV.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6-8월의 시원하고 선선한 캐나다의 날씨에서 영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약 한 달간의 캐나다 어학연수는 나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수업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들, 다른대학교 한국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놀기도 했고, 수업해주셨던 교수님들 또한 전부 열정적이고 친절하셨으며, 같은 학교 친구들로 같은 하우스에 배정받아 한달간 생활했던 기숙사 또한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다. 한국에서 지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되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캐나다에서 배웠던 어학 공부를 꾸준히 연결해가며, 영어 회화에 집중하고, 추가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공모전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항공사는 굳이 국내항공사를 고집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학 연수에 관한 후기들을 많이 읽어보며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추가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소량의 현금만을 준비하거나, 현금 없이 여행용 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강의실 사진]

[기숙사 1층 공용거실]

[기숙사 1층 공용 주방]

[공용 세탁실]

[개인 방 침구 및 서랍장]

[개인 방 서랍장 및 옷장]

[Guelph 시내 Basilica 성당]

[아이스크림 가게_ Boathouse]

[캐나다데이_Riverside Park]

[캐나다데이_불꽃놀이]

[별첨 1] 해외파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redacted]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학교명	궬프대학교
	파견 시기	[26]학년도 [하계]학기	파견 기간	1개월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Listening & speaking	*듣기와 말하기 수업*	
		Reading	*글 읽고 이해하는 수업*	
		Writing	*글쓰기 수업*	

체험수기

Ⅰ.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저는 하계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캐나다 궬프대학교로 파견되었습니다. 궬프대학교는 캐나다 궬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궬프는 캐나다의 중남부, 온타리오주의 남부에 위치해 토론토까지 2시간 이내로 이동 가능합니다. 궬프대학교는 1964년 설립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공립대학교로, 캐나다의 종합대학교 중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학교입니다. 또한 생명과학, 농업, 동물과학 분야의 국제적 명성이 높고 자연 녹지가 많은 여유로운 분위기의 캠퍼스입니다. 수업받는 동안 궬프에서 만난 모든 이들은 친절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 수업 중 하나로 Peer conversatio을 통해 만난 튜터는 궬프에서는 버스를 타고내릴 때 항상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이야기하며 궬프 사람들은 여유롭고 친절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 또한 궬프에서 잠시동안 생활하며 이에 대해 깊이 공감했고 궬프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2. 파견 전 절차

조선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에 따라 하계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줌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왕복항공권 등)을 제출하였으며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카카오톡 단톡방 링크가 있어 이후 거의 모든 안내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대학교 관련 안내 이외의 궬프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안내는 SJC에서 개설한 단톡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예를 들어 궬프대학 입학 시 필요한 사항(캐나다 도착 후 공항 픽업, 홈페이지 로그인, 궬프대에서 진행될 프로그램의 일정 등)에 관해서는 모두 SJC 단톡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단톡방의 공지 혹은 안내를 가능한 빨리 확인하여 요청에 응해야하고 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레벨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궬프대학교에서 진행될 프로그램이 선택됩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궬프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이전에 한국에서 진행한 레벨테스트를 통해 결정되어 따로 수강신청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레벨에 따른 수업 시간표는 OT시간에 배부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수업이 자신의 레벨과 맞지 않다고 느껴 변경이 필요할 시 궬프대학교의 안내에 따라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어 변경한 학생이 있었고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궬프대학교에 도착한 날 배

정되었고 1인1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5명이 하나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방의 열쇠, 집의 열쇠를 받게 되며 거실,화장실(층마다1개로 총 2개),부엌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학교까지 걸어서 10분가량 걸리는 것 같고, 기숙사 로비, 세탁실은 3분정도 거리에 있어 매우 가깝습니다. 추가로, 기숙사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로비에 말씀드리길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창문이 망가져 있어 말씀드리니 고쳐주셨고, 침구가 세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니 교체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파견 시 아래메일로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받았고 이 메일을 통해 요청자료를 보냈습니다.

Ⅱ.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레벨테스트로 배정받은 수업에 참여하였고, High intermediate 레벨의 수업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Listening & Speaking, Reading, Writing 으로 총 3과목의 수업에 참여하였고 Listening & speaking의 경우 월수 12:30~4:20(총 2교시로 중간에 10분 쉬는시간), Reading의 경우 화목 8:30~10:20분, Writing의 경우 화목 10:30~12:20에 진행되었습니다. 각 과목의 교수님들이 안내하신 책을 구매하였고 책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하는 퀴즈, 과제 등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Listening& Speaking의 경우 지문을 읽고 관련 문제에 대해 모둠으로 이야기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답이 정해진 문제도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하는 경우도 많아 지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Readig도 비슷하게 지문을 읽고 자신이 이해하여 이를 다시 다른 학생에게 설명하는 등으로 진행되었고 Writing의 경우 자신의 essay를 쓰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수업시간에 지문을 읽고 이해해야지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과제안내,수업안내 등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외국어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세이 쓰기 과제를 수행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정리해야했기에, 이를 통해 작문하는 능력이 많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발표,토의 등 영어를 말하는 시간이 많았고 이러한 점이 저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 학습 방법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과제는 새롭게 수업 때 배운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것부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essay쓰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모둠으로 진행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팀 과제 또한 있었습니다. 과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3가지 이상씩은 있었던 것 같고, 시간 또한 많이 걸렸습니다. 때문에 수업 후 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저를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과제를 하곤 했습니다. 함께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와가며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 혹은 개별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퀴즈인 시험개념의 과제를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업 시간에 진행된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하였습니다.

Ⅲ.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저는 왕복항공권, 비자, 보험가입증서를 출력하여 입국심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이외에 현지생활을 위해 가져가시길 추천드리는 물품은 아래정도입니다.
- 휴지(사려면 많이씩 팔고 로비에서 저희 방의 경우 제공받았지만 다음에는 사서 사용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를 보았습니다. 저는 두루마리 1개 챙겨갔고 로비에서 받은 것과 함께 사용하니 충분했습니다.)
-자외선차단제품(선크림, 겉옷, 선글라스 등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햇볕이 매우 강해 엄청 탔습니다.)
-수건(제공되는 수건은 2개입니다.)
-젓가락(그릇, 냄비, 프라이팬은 있었는데 젓가락의 경우 마트에서 나무젓가락밖에 보지 못해 많이 사용하실듯하면 챙기시길 추천합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궬프대학교에서 버스 10분, 도보 20분 내외에 월마트가 있어 식재료,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기에 편리했습니다. 궬프대학교에서 배부받은 버스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궬프내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토론토로 이동시에는 고버스를 이용하여 2~3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캠퍼스에 고버스의 버스정류장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의 경우 저는 토스, 신한 솔트래블을 이용해 미리 외화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고, 결제가 안 된적은 없었습니다. 통신의 경우 로밍도깨비 esim을 사용하였고 매일 1GB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학교와 기숙사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어 1GB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의료의 경우 학교 캠퍼스 투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안내받게 되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수업은 월~목에 이루어지므로 금~일까지는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게됩니다. 저는 대부분 여행을 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시간이 있는 평일에는 근처 영화관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 하루는 궬프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나이아가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신청하여 참여하였습니다. 나이아가라 프로그램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졌고 버스가 내려주고 그곳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렛에도 방문하는 등 알차게 이루어져있어 나이아가라를 방문해보고 싶으시다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프로그램비용	4,303,870원
항공료	2,659,300원
보험료	18,640원
통신비	70,900원
책값	206.79 CAD
비자,입학신청비	207 CAD
식비	697.97 CAD
여행비용	1770.49 CAD, 1,174,100원

합계	11,348,975원

Ⅳ.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한달가량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하며 저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간 이외에도 여행을 하면서 혹은 일상 속에서도 항상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이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고 떨렸으나 점차 영어로 말하는 것이 당연해지며 익숙해져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을 준, 경험을 하게 해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아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취업에 대한 경험으로서 온 학생들을 많이 보았고 저 또한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저는 만약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된다는 친구가 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신청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한달가량 있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주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궬프는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곳이었고 모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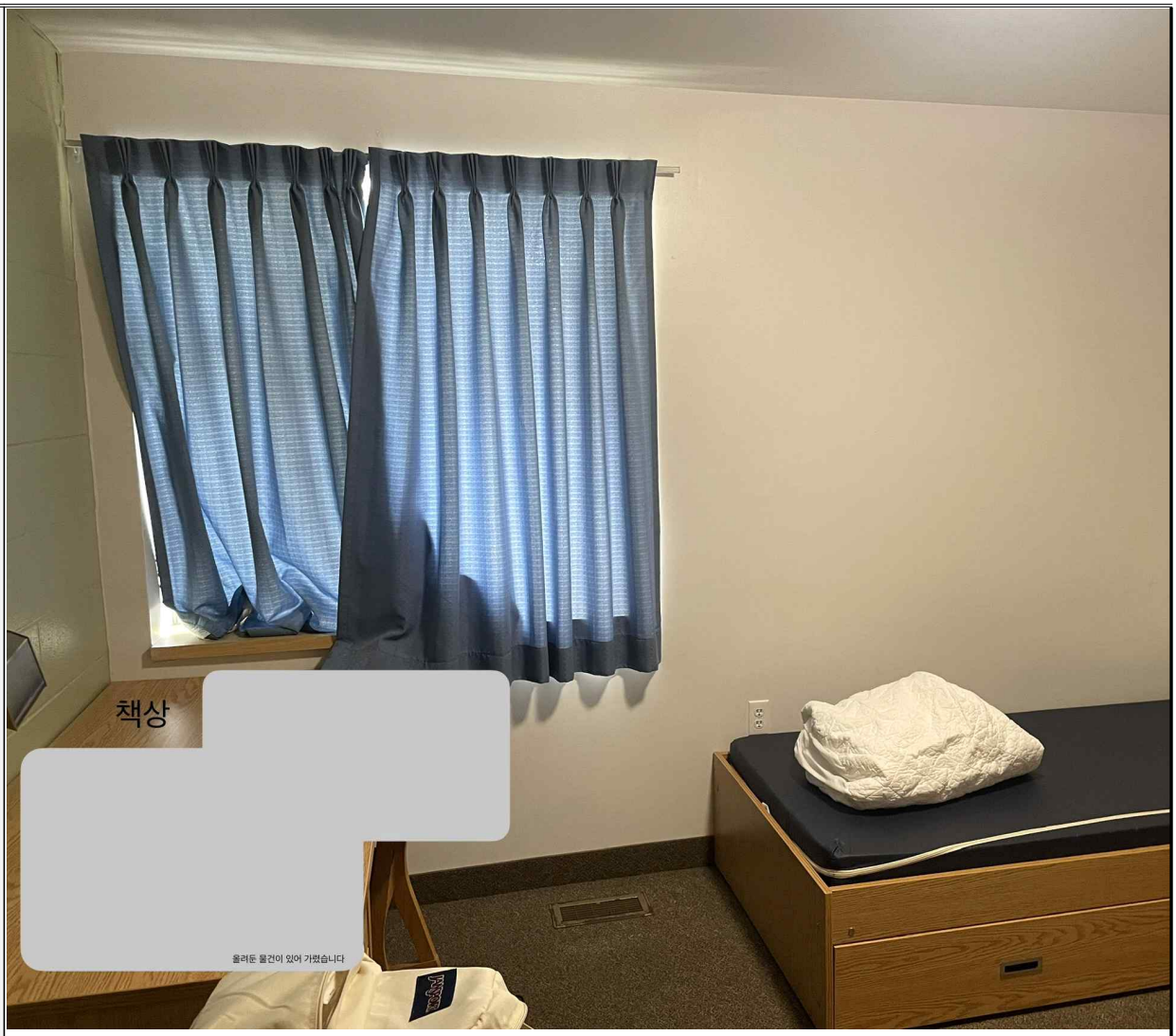
4.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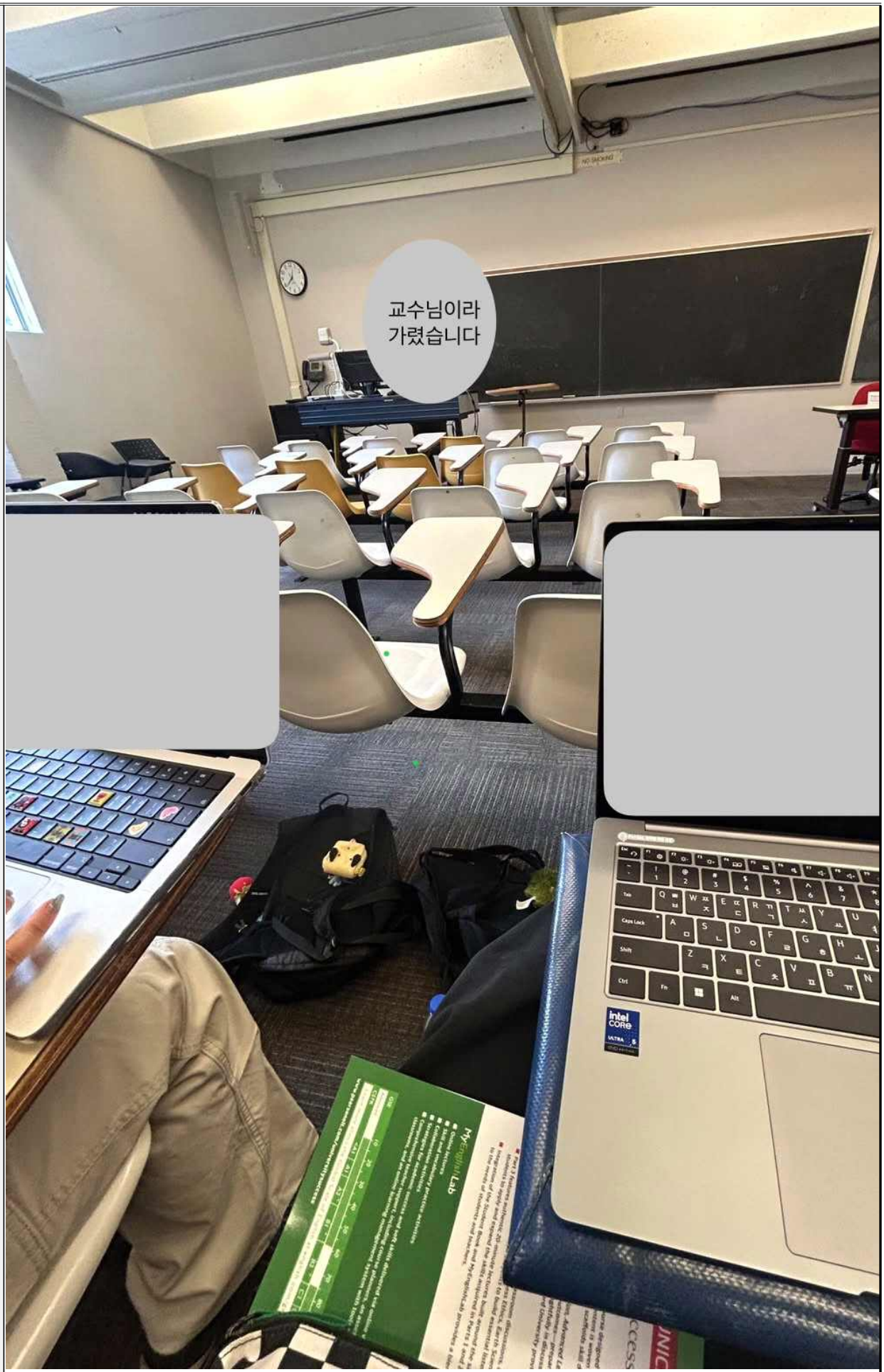
학교에 팀홀튼, 스타벅스가 있지만 일찍 닫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과제 중 peer conversation 진행을 위해 미리 엑셀 파일을 통해 예약을 해야하는데 미리미리 해두시길 추천합니다.

Ⅴ.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토론토 아일랜드에서의 사진입니다. 페리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비싸지 않아 반나절 정도 시간내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넓으니 가급적 자전거 타고 다니시길 추천합니다.

기숙사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옷장의 오른쪽 문을 열면 거울이 달려있습니다.

	 기숙사 사진입니다. 책상이 있고 책상옆엔 선반이 달린 서랍이 있어 수납공간이 매우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실 사진입니다.

	 엘로라입니다. 궬프대학교에서 우버를 타고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한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가게들과 음식점등이 있습니다.

[별첨 1] 해외파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redacted]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학교명	궬프대학교
	파견 시기	[1]학년도 [여름]학기	파견 기간	1개월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체험수기

Ⅰ.파견대학

궬프대학교

1. 파견 대학 소개

궬프 대학교(University of Guelph)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궬프에 위치한 명문 종합대학교입니다. 농업 및 수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며, 인문학, 경영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뛰어난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좋으며, 캠퍼스가 넓고 안전하여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파견 전 절차

노미네이션 및 입학 신청: 본교 합격 후 궬프 대학교 국제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입학 신청서(Online Application) 작성 및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 제출

비자 발급: 6개월 미만 체류 시 eTA(전자여행허가) 신청, 1년 체류 시 캐나다 학생 비자(Study Permit) 신청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은 레벨테스트로 진행되며 기숙사는 담당자분이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담당부서: Centre for International Programs (CIP)

담당자/이메일: Exchange Program Coordinator / cip@uoguelph.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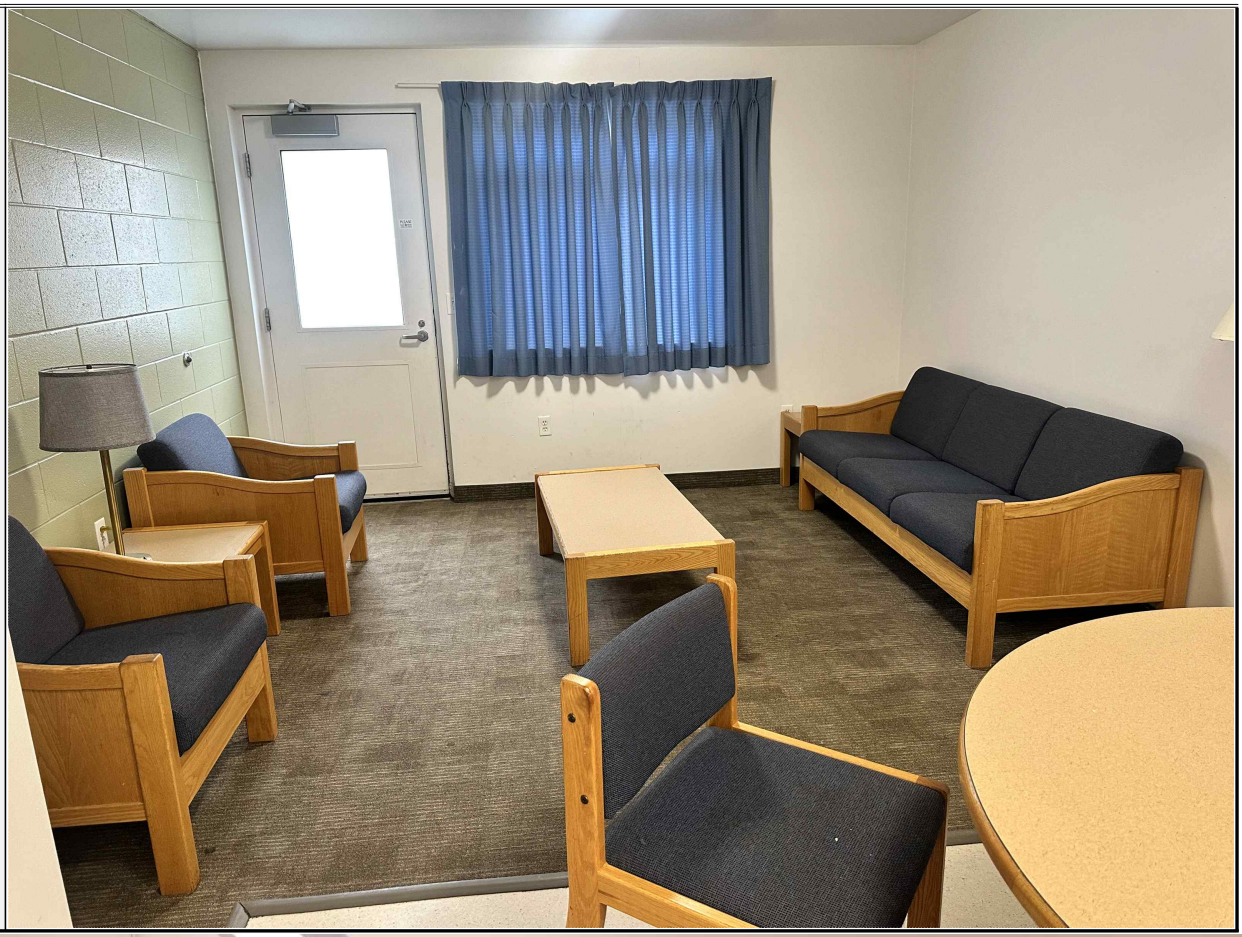
웹사이트: https://www.uoguelph.ca/cip/

Ⅱ.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레벨에 따라 배우는 과목이 다릅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수업 발표, 에세이 작성,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교환학생들과의 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전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일상회화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어휘력과 논리적 표현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3. 학습 방법 과제 관리: 매주 과제와 읽기 자료(Reading assignment)의 양이 많으므로 강의 계획서(Syllabus)를 바탕으로 주차별 일정을 미리 관리했습니다. Ⅲ.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현지 물가: 토론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나 한국 대비 식료품 및 외식비가 비쌉니다. (식재료 사서 직접 요리 시 생활비 절감 가능)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끝통, 통신 등) 1. 식사: 캐나다 대학 중 학식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UC Chef Hall, Creelman Hall 등). 기숙사 취사 시 No Frills, Metro 등 현지 마트 이용.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여행 및 여가: 주말을 활용해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시내, 주요 도시 여행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합계:1000만원 항공료:260만원 보험료:5만원 식비:150만원 수업료:450만원 기타:135만원 Ⅳ.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시각과 넓은 포용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귀국 후 이번 파견을 통해 관심이 깊어진 전공 분야에 대해 추가 심화 과목을 수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 교류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구체화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궬프 대학교는 캠퍼스 분위기가 매우 따뜻하고 친절하며 학생 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학내 다양한 클럽 활동이나 CIP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알찬 교환학생 생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4. 기타사항 룸메이트들이랑 거의 같이 다녀요 룸메 중요해요 Ⅴ.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별첨1] 해외파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redacted]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학교명	**궬프 주립 대학교**
	파견시기	7월	파견 기간	**2026.06.24-07.25**
파견정보	수강과목개요	과목명	과목설명(간략)	
		Listening & Speaking	듣기와 말하기	
		Writing	글쓰기	
		Reading	읽기	
		BEP	현지 사업장 투어	

체험 수기

Ⅰ.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궬프대학교(University of Guelph)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궬프에 위치한 종합대학으로, 특히 생명과학 및 농업·환경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대학이다.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와 다양한 학생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도서관, 체육시설,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학업뿐만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었다.

2. 파견 전 절차

파견 전에는 토익 성적과 학점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하였다. 선발된 이후에는 국제교류 관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안내되는 일정과 공지에 따라 항공편을 예매하고, 여행자보험 가입 및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와 일정이 안내되므

로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었으며, 파견 전에 온라인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업 반이 배정되었으며, 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시험을 보거나 해당 반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반을 이동할 수 있었다. 또한 파견 전에 ELCP만 수강할 것인지, ELCP와 BEP를 함께 수강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기숙사는 Dundas Hall에서 생활하였다. 한 집에 3~5명이 함께 거주하며, 각 집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에는 공용 주방과 거실이 있고, 2층에는 방 2개와 화장실 1개, 3층에는 방 3~4개와 화장실 1개가 있다. 여러 채의 집이 서로 붙어 있는 형태로 기숙사 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침구류 중 이불과 베개가 제공되며, 각 방에는 옷장, 책장, 책상, 침대가 마련되어 있다. 기숙사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숙사 입구에 있는 East Residence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택배 역시 주로 해당 장소에서 수령하였다. 기숙사의 출입은 열쇠를 사용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파견대학 측에서는 SJC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였으며, 담당자는 강연우 선생님으로 안내받았다. 연락은 주로 단체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받거나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였다

Ⅱ.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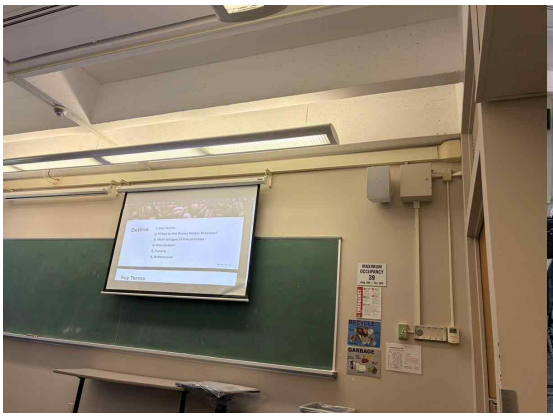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Listening & Speaking, Writing, Reading 과목을 수강하였다. 분반에 따라 Listening과 Speaking을 서로 다른 선생님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업은 레벨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을 배정하기 때문에 같은 반 학생들 간의 영어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담당 선생님에 따라

과제의 양이나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비교적 부담이 적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과제의 양과 난도가 높아졌다.

특히 Writing 수업에서는 향후 논문이나 에세이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글의 구조와 표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발표와 에세이 등 다양한 형태의 과제가 있었으며, 과제를 제출한 후에는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Writing 수업의 과제량이 가장 많아 부담이 있었지만, 실제 학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수업 중 하나였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Advanced 반의 경우 대부분 한국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업 외 시간에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교 수업보다 오히려 기숙사 생활이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기숙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IT 데스크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당과 술집에서 주문 및 예약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실생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과서나 수업에서 배우는 영어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다. 수업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예습과 복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학습 방법

수업에서 요구하는 과제는 정해진 기한에 맞춰 수행하고, 쪽지시험이나 평가가 있을 경우 미리 준비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였다. 특히 Writing 과목의 경우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과제에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정규 수업에서의 학습보다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영어 실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따라서 파견 기간 동안에는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생활

1. 입국 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퀠프의 물가는 전반적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일부 품목은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느꼈다. 다만 토론토의 물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외식의 경우 팁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특히 술과 담배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 중에서는 변압기를 반드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에세이와 레포트 등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노트북이 없거나 무게 때문에 태블릿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삼성 태블릿보다는 아이패드를 추천한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아이패드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환전해 가는 것보다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였다. 필요한 경우 소액의 현금만 준비하고 대부분의 지출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학교 주변 Walmart에 약국이 있으며, 교내에도 의료시설이 있으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하다. 은행은 체류 기간 동안 직접 이용할 일이 없어 구체적인 이용 경험은 많지 않았다.

퀠프 내에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제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평소 교통비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었다. 다만 토론토 등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GO Bus를 이용하게 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Weekend Pass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용보다 저렴하다.

통신은 이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전화가 필요한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화 이용이 편리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학교에서 단체로 진행하는 활동으로는 토론토 트립과 나이아가라 폭포 투어 등이 있으며, 특히 나이아가라 폭포 투어를 추천한다. 이외에도 Movie Night 등 교내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참여할 기회가 많았다.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토론토, 뉴욕, 퀘벡, 몬트리올 등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며 캐나다와 북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였다. 기숙사 바로 앞에는 운동센터가 있어 헬스장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줌바댄스, 요가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기숙사 앞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경기가 자주 열리고, 기숙사로 이동하는 길에 하키장도 있어 현지 스포츠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궬프대학교의 캠퍼스는 경관이 아름다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캠퍼스에서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았으며, 도서관 역시 학습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ex) 합계, 프로그램 비용, 항공료, 보험료, 숙박비용, 식비, 개인 경비(통신비, 여행비용 등) 등

항목	금액	세부 내역
프로그램 비용	**4,390,050 원**	Tuition + Student Service Fee + On-Campus Residence + Administrative Fee
항공료	**2,236,540 원**	왕복 항공권
숙박비용	**약 1,550,195 원**	궬프 + 토론토 + 몬트리올+ 뉴욕 + 시애틀
보험료	**39,980 원**	여행자보험
비자	**7 CAD**	캐나다 비자
로밍	**36,000 원**	통신비
식비	**약 1,000,000 원**	현지 장보기 및 외식
개인 경비	**약 2,740,000 원**	여행·쇼핑·관광 등
합계	**약 12,00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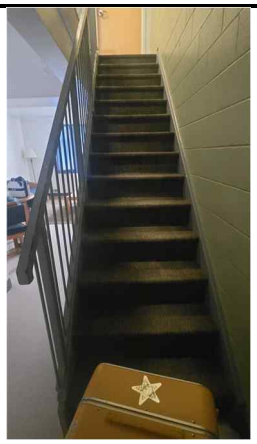
※ 본 프로그램은 약 1개월간 진행되었으나, 프로그램 종료 후 약 2주간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추가로 진행하여, 위 경비에는 프로그램 기간 외 개인 여행에 소요된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특히 토론토, 몬트리올, 퀘벡, 뉴욕, 시애틀 등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관광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개인 여행을 별도로 계획하는 경우 위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총 소요 경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Ⅳ.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이번 프로그램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이었다.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현지에서 생활하며 외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수업만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점도 의미 있었다.

	주말마다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태평양 너머의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생활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단순히 영어를 공부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직접 해외에서 생활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보는 경험 자체가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프로그램 참가 전에도 막연하게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해외 유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해외에서 생활해 보면서 이러한 진로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평생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험 자체가 시야를 넓히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학원 진학이나 박사후연구원 과정 등을 해외에서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어학연수 기간 동안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와 포럼 등을 찾아보았는데, 한국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분야의 포럼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단순히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세계와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수업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해외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해외 유학이나 해외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졸업 전에 한 번쯤 이러한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생활 측면에서는 로밍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며, 변압기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드라이기 등 부피가 크거나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용품은 직접 가져가기보다는 현지에서 구매하는 편이 편리하다. Walmart에서 다양한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식료품의 경우 Metro가 더 다양한 편이었다. Dundas Hall은 3층 구조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짐을 옮길 때 계단을 이용해야 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숙사나 학교생활 중 불편한 점이나 이의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혼자 참고 있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의사를 표현할수록 프로그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고, 항공권과 보험, 통신 등의 준비를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이나 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는 수업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학교 행사나 스포츠 경기, 여행, 현지인과의 교류 등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어학연수의 기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현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Transit 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때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택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Uber와 Lyft의 요금을 비교하여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는 Lyft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두 서비스를 모두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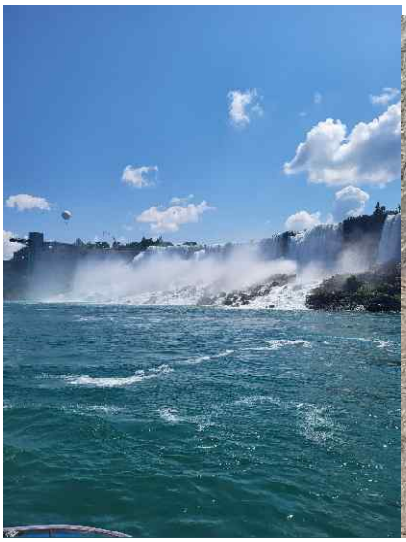
교내 운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Planfit 앱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헬스장에 있는 기구를 기준으로 운동 루틴을 구성할 수 있어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교내 식당의 뷔페 코너는 오후 2시 이후 가격이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사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또한 기숙사 생활 중에는 한국에서 젓가락을 미리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에서 한국식 젓가락을 구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어 개인적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편리하였다.

교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물 책을 구매하기 전에 e-book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e-book이 실물 교재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으며, 무거운 책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였다.

하키 경기를 관람하고 싶은 경우에는 하키장에 방문하면 당일 경기 일정과 시간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에서 현지의 아이스하키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지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과정 자체가 해외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Ⅴ.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사진 1. 나이아가라 폭포 트립** **학교에서 진행한 나이아가라 폭포 트립에 참여하여 캐나다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직접 경험하였다.** **사진 2. 궬프대학교 교정에서 만난 야생동물** **궬프대학교는 캠퍼스가 넓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야생동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다람쥐를 비롯한 여러 동물을 캠퍼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별첨 1] 해외파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redacted]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학교명	궬프 대학교
	파견 시기	[2026]학년도 [1]학기	파견 기간	1개월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listening&speaking	말하기 및 듣기 전략을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	
		writing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학술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중점	
		reading	교재에 소개된 효과적인 어휘 전략을 활용하여 학술적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	

체험수기

Ⅰ.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캐나다 온타리오주 남서부의 궬프에 위치한 공립 종합대학교

2. 파견 전 절차

-토익 시험→ 프로그램 신청→ 합격 공고→ 출국 전 준비(비자, 항공권, 여권 등)→ 프로그램 진행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ELCP와 ELCP+BEP 중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

-기숙사는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랜덤으로 배정됨, 1층은 주방과 거실이 있고 1인 1실 사용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담당자 이름: 강연우

-메일: admin@sjcglobal.net

Ⅱ.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Listening&Speaking: 여러 주제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팀별로 토론

-Writing: 학술적인 내용이 포함된 에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에세이 등 에세이 작성과 발표가 주된 수업 내용

-Reading: 수업 내용이나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많음

-추천 강의: writing

-추천 이유: 가장 과제도 많고 과제 수준도 가장 어렵지만 그만큼 배우는 게 많은 강의

2. 외국어 습득 정도

-외국인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외국어 습득이 가장 빠름

-개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여행다닐 때 외국어가 빨리 늘게 됨

3. 학습 방법
-영어 자체를 많이 쓰고 말한 수업은 listening&speaking, 학술적인 영어를 배우고 발표한 수업은 writing, 나에 대해 표현하는 영어를 많이 쓰는 수업은 Reading, 생활 영어가 빨리 느는 건 자유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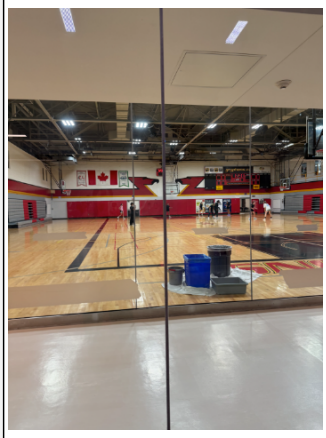
Ⅲ.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필요한 물품: 썬크림, 수건, 한식(김, 햇반, 라면 등), 얇은 겉옷이나 긴팔, 상비약
-현지 물가 수준: 한국보다 살짝 더 높은 수준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식사: 주로 점심은 학식, 저녁은 마트에서 식재료 사서 기숙사에서 만들어 먹음
-편의시설: 대부분 다 버스로 다닐 수 있음, 통신은 이심 사용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금,토,일은 캐나다의 다른 지역을 여행함
-수업이 일찍 끝나면 다운타운을 자주 감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프로그램 비용	₩4,068,150
항공료	₩2,845,100
보험료	₩25,620
식비	₩681,526
통신비	₩182,140
여행비용	₩9,545,093
교재비	₩201,918
합계	₩17,549,547

Ⅳ.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생활을 통해 독립심과 자심감을 얻었으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짐, 완벽해야한다는 강박을 깨고 일단 영어로 뭐든 설명해보면서 말문이 많이 트인 것 같음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꾸준히 토익 성적을 올려갈 계획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뭐든 해보고 싶은 건 다 하고 왔으면 좋겠음, 먼 곳까지 큰 돈 들여서 간만큼 최대한 많은 경험 해보고 되도록이면 쉬는 날 기숙사에만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음
-수건 많이 없으면 빨래 자주 해야하니까 수건 챙겨가면 좋음
-실내용 슬리퍼 가져가기
-필수품 아니면 그냥 현지에서 사서 쓰고 버리고 가는 게 편함, 캐리어는 최대한 가볍게 오는 게 좋음
4. 기타사항
-없음

Ⅴ.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나이아가라 투어(궬프 대학교 활동 중 하나)



*학교 체육관(오티 때 배부한 학생증으로 출입 가능, 배드민턴 채는 대여)

*강의실

	 *기숙사 *세탁실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redacted]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학교명	University of Guelph
	파견시기	26-하계	파견 기간	2026.06.25-07.24
파견정보	수강과목개요	과목명	과목설명(간략)	
		Low Intermediate Listening & Speaking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 듣기와 말하기 연습	
		Low Intermediate Writing	다양한 주제에 대해 문단 및 짧은 글 작성하여 영어 작문 능력 향상	
		Low Intermediate Reading	다양한 영어 지문을 읽으며 영어 독해 능력과 어휘력 향상	

체험 수기

Ⅰ.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University of Guelph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구엘프에 위치한 공립대학교이다. 다양한 전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도 잘 마련되어 있다. 캠퍼스 내에는 강의실, 도서관, 학생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파견 전 절차

하계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한 뒤 서류 제출과 선발 절차를 거쳤다. 선발 이후에는 조선대 측에서 온라인 OT를 받고, SJC라는 협력기관을 통해 파견 관련 안내를 받았다. 이후 항공권 예약과 보험 가입, 입학 관련 비용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승인 후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캐나다 출국 전 온라인으로 개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반이 자동으로 배정되었다. 기숙사는 Dundas Hall이라는 학교 기숙사에 배정되었고, 5인이 함께 생활하였다. 3층으로 이루어진 한 건물을 5명이 함께 사용했으며, 각자 개인 방이 하나씩 제공되었다. 화장실은 2개이며, 주방에는 기본적인 식기류와 조리도구가 갖추어져 있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다.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SJC 강연우 담당자(카카오톡 단체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

	Ⅱ.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Low Intermediate Listening & Speaking: 일상생활 및 학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연습을 함. Low intermediate Writing: 기본적인 영어 문장 구조와 표현을 익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문단 및 짧은 글을 작성하며 영어 작문 능력을 향상시킴. Low Intermediate Reading: 다양한 영어 지문을 읽고 핵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을 통해 영어 독해 능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킴. 다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지만 Listening & Speaking이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 평소 영어 말하기에 자신이 없는 편이었는데, 수업에서 계속 영어로 대화하고 발표하면서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실력도 향상된 것 같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영어 실력이 확실히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수업 덕분도 있지만 캐나다에서 직접 생활하다 보니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많았고, 필요한 표현을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은 실제 상황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3. 학습 방법** 과제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 과목별로 매주 해야 하는 과제가 따로 있고, 수업시간마다 다른 과제도 자주 나온다. 수업시간에 팀플은 기본이며 발표 과제도 있으니 수업과 과제를 성실히 따라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다. 또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말하다가 막히면 바로 AI를 활용해 그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되는지 찾아보고, 바로 따라 말해 보았다.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찾아본 표현이라 그런지 기억에도 더 잘 남았다. **Ⅲ.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나는 짐을 별로 많이 가져가지 않았다. 스킨케어와 드라이기, 수건 같은 것도 캐나다에서 샀다. 외식 물가는 비싸지만 Walmart와 같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이나 식료품 가격은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꼈다. 올리브영이랑 비슷한 Sephora같은 화장품 매장도 여러 곳 있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교통은 잘 되어있었다. 학교 측에서 Guelph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카드를 제공해 주었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었다. Toronto같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주로 GO Train이나 GO Bus를 이용했다. 인터넷으로 미리 티켓을 구매한 뒤 학교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어 편리했다. 주말에는 Weekend Pass라고 하루동안 GO Bus와 GO Train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가 있어 비교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점심은 보통 학식을 먹었다. 학식은 기본적으로 여러 음식을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이었고, 볶음밥은 항상 있었다. 피자랑 햄버거, 치폴레, 샌드위치, 다양한 디저트들까지 종

류가 다양했다. 보통 접시에 담긴 음식 무게를 재서 결제한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 많이 담아도 한 끼에 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카페가 여럿 있어서 수업 중간에 음료나 간단한 음식을 사 먹기 편리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학교에서 신청자를 받아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캐나다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기억에 많이 남았고, 좋은 경험이었다. 다른 Sports Day, Movie Night, Toronto Trip, Icebreaking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수업 외에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고 캐나다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궬프대 등록비	230,000원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여행자 보험	45,000원
ETA	8,000원
프로그램 비용(ELCP + BEP)	3,000,000원
기숙사비	1,100,000원
교재비	230,000원
식비, 개인 경비 등	5,000,000원

Ⅳ.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이번 경험을 통해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어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싶다. 학교 수업과 전공 공부도 성실히 하면서 어학 성적을 높이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해외 프로그램에도 너무 다시 참여하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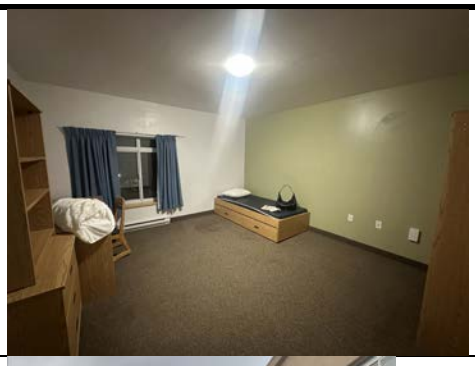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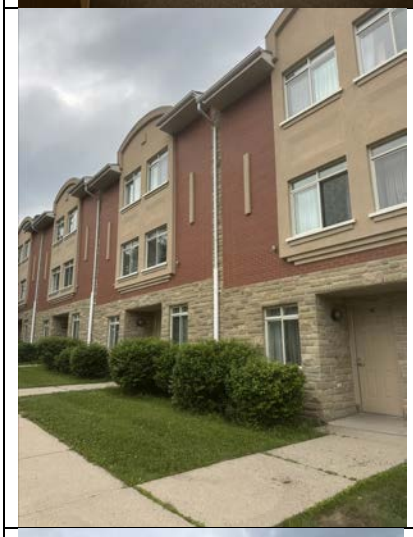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출국 전에 기본적인 영어 회화 표현을 미리 익혀 가면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많이 이야기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먼저 다가가려고 하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외에서 직접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영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Ⅴ.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기숙사 나의 개인 방이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비교적 큰 편이었고, 다른 방 중에는 이보다 훨씬 작은 방도 있었다. 방 크기나 위치는 본인이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의로 배정된다.
			기숙사 외관이다.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5명이 함께 사용하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고, 2층과 3층에는 각각 화장실과 샤워실이 하나씩 있다.
			학교 잔디밭에서 피크닉(강의실 사진은 없음)

[별첨 1] 해외파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redacted]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학교명	퀠프대학교
	파견 시기	[2026]학년도 여름방학	파견 기간	1개월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	
		Reading		
		Writing		
		Listening&Speaking		

체험수기

Ⅰ.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퀠프대학교는 교내에서 마약, 담배를 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그래서 교내에 마약중독자들, 담배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2. 파견 전 절차

합격 후 학교에서 이메일로 온 내용을 읽고 해당 이메일 속 오픈채팅에 들어가 제출해야할 서류, 안내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여행자보험 가입, 여권 발급, 비자 발급 등을 한 뒤, 이를 증명하는 문서들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퀠프대학교 측에서 몇차례 이메일을 보낸 내용을 읽고 링크를 클릭해서 레벨테스트를 봤습니다. (이때, 3개의 시험을 다 봤어야 했는데 한 개만 봐서 실력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했습니다.)

3. 기숙사

1인 1실이고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이 더 컸습니다. 방음은 본인이 조용히 하고 있을 때 가까운 방들, 바로 아래층 방의 소리가 어렴풋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4. 파견대학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담당자님: Gul Baham

Ⅱ.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만한 레벨의 수업을 들으세요

2. 외국어 습득 정도

오랫동안 영어회화를 안 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씩 단어들이 기억이 안나 사전을 찾아봤어야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줄고 긴 문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학습 방법

많이 말하려고 의식해서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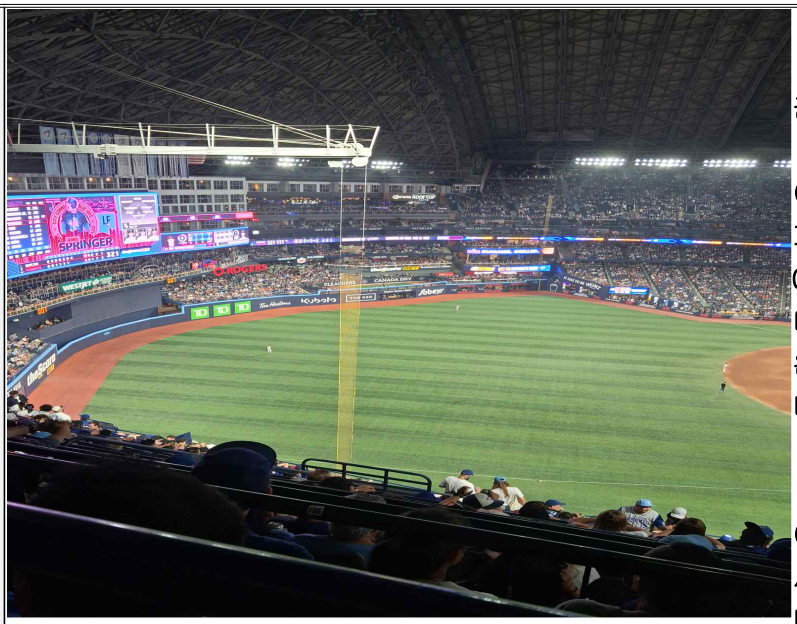
Ⅲ.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한국에서 비비고 배추김치, 김, 참치캔 각각 10개씩 싸가세요(한식 먹고 싶을 때 월마트에서 재료 사서 한식 만들어서 같이 먹으세요 월마트에 짜파게티, 김치가 없어요)

	외식하면 돈 많이 듭니다 평일 점심에는 학식먹고 저녁은 월마트에서 재료 사서 집에서 해먹어서 금, 토, 일에 다른 지역 놀러갔을 때 좋은 식당, 뷔페 가세요(360 The Restaurant at the CN Tower 적극 추천합니다) 카페 음료들은 우리나라랑 가격이 비슷해요 캐나다는 110V 씁니다 그래서 변압기 가져가야돼요!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 다치지 마세요 한 번 병원가면 10시간 넘게 기다려야하는 경우도 많아요 - 궬프 시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오후 5시면 문을 닫아요 하지만 토론토는 9시 넘어서도 문을 다 안 닫으니까 금, 토, 일에 토론토 등 주요 도시 놀러갈 때 궬프 시에서 못 살 만한 건 미리 사고 평소에는 학교 근처 월마트나 가까운 마트 가서 사세요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Niagara Falls Trip은 꼭!! 신청하세요!!! 웬만하면 날씨가 정말 맑을 때 가는 게 좋아요!! (폭포 중앙에 있을 때 물 때문에 동영상 멈춤 버튼이 눌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찍다가 잘 찍히고 있는지 한 번씩 보세요 물 다 맞아도 나오면 3분 안에 몸에 묻은 물이 거의 다 마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폭포 옆에 아이스크림이 유명하니까 먹어보세요 저는 초콜릿, 스프링클 붙인 콘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린 거 먹었어요) - Canada Day에 궬프 시 내 공원에서 폭죽 30분 동안 터뜨리니까 그 공원가서 보세요 - 학교에 잔디밭이 있고 Canada Day 때 폭죽 터뜨리는 공원이 잔디밭이어서 다인용 돗자리 가져가는 걸 추천해요 4. 체류기간 소요 경비 - 항공료: 약 350만원 - 식비: 약 390만원(수업 없는 날에 여행가서 외식하면 돈 많이 들어요, 카페랑 팀 홀튼 간 거 포함이에요) - 여행비용: 30만원 프로그램 비용: 약 15만원 - 학교 굿즈(학교 내 BOOK STORE에서 팔아요): 약 35만원 - 교통비(우버, 택시비, 지하철비 등): 25만원(OT날에 학교에서 궬프 시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버스카드를 줍니다 버스 타고 내릴 때 이걸 쓰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불시에 월마트를 가거나 놀러갈 일이 생기니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두세요) - 교재비: 30만원 - 공기계: 27만원(핸드폰 박살나서 월마트 근처 백화점에서 샀어요) Ⅳ.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 영어회화에 자신감이 더 생겼고 다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2. 향후 계획 영어공부를 꾸준히 해서 목표로 하는 회사의 미국지사에서 일하고자 합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6월 25일에 하는 OT 잘 듣고, 나중에 OT자료 준다고 해도 담당자님 메일, 이름, 역할 등 중요내용을 노트에 잘 써두세요(나중에 준 OT자료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없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레벨테스트 다시 보려면 담당자님들 이메일이 필요해요) 4. 기타사항 - 금, 토, 일은 무조건 토론토 등 다른 지역 많이 가보세요(go transit의 weekend pass

	사고 학교 내 버스정류장에서 해당 목적지까지 구글맵으로 go transit버스를 이용한 경로를 검색한 후 버스 도착 5분 전에 활성화해놓으면 주말 내내 지하철,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쓸 수 있어요 weekend pass 하나에 만 원이에요, 주요 도시에 가면 마약중독자가 가끔 보이는데 길 가다가 보이면 그냥 피해가세요) - 영화관에서 영화보러 가보세요 한국에는 없는 팝콘의 여러 맛이 있고 푸틴(캐나다 대표음식), 밀크쉐이크, 초코쉐이크 등을 팔기 때문에 팝콘, 쉐이크를 같이 먹어보세요 - 푸틴 먹어보세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음식이에요 - 네일아트 받아보세요! 저는 궬프 시내에서 받았고 연장, 젤네일, 파츠 많이 붙였어요 총 2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보여드린 사진보다 잘 나왔는데 12만 5천원이었어요(팁 제외) - courselink에 웬만하면 학교 가기 전에 가입하거나 초반에 빨리 가입하세요 가입 시도 하다가 안되면 학교 내 도서관 1층의 IT Help에 가서 물어보세요 - 도서관 1층, 3층은 말해도 되는 공간, 2, 4층은 조용히 해야되는 공간이고 평일에는 오후 5시에 문을 닫고 주말에 쉬니까 주말에 공부해야 되면 궬프 시내의 공립도서관 가세요(수업 시작한 뒤로는 Partner Institutions할 때를 제외하고 학교 도서관 안 갔어요 보통 학식 먹는 곳 옆 소파에 앉아서 다 같이 과제하거나 새벽에 각자 방에서 과제했어요) - 점심 시간에 냄새나는 음식 가져오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음식냄새나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 점심 가져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 6월 25일에 OT를 통해 안내받을 거지만, 수업을 들어보고 더 높은 수업을 듣고 싶고 스스로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레벨 테스트를 다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메일로 왔던 레벨테스트를 다시 보면 안됩니다. Nicole Ives라는 분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담당자 분들이 첫 주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면 성적처리 때문에 한 반에서 수업을 듣는 일수가 부족해져서 반을 못 옮긴다고 하셨어요.) 담당자 분들이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격일마다 재택근무하시며 이메일을 늦게 보시기도 하므로 반 옮기고 싶다는 결심이 생긴 날 당일에 찾아가세요(보통 담당자 분들은 모두 Johnston Hall에 있어요) 그 분이 보신 후에 Gul Baham이라는 분과의 약속을 잡으라고 링크를 보내줄 거에요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신청을 해놔서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할 수 있으므로 빨리 판단해서 빨리 신청하세요!! - 혹시 모르니까 미리 구글 포토앱으로 꾸준히 사진, 영상들을 백업하세요 (전 핸드폰이 박살나서 2주 분량의 사진들이 날아갔어요) Ⅴ. 활동 사진



금요일~일요일까지 2박 3일로
메이저 리그에 속해있는 Blue Jays 야구경기 보러 간 사진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돔이 열려서 바로 앞에 CN타워가 보여요(Ticket Master에서 미리 예매를 해야돼요 잘 보이는 곳은 자리가 빨리 차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매하세요)

이 날 찍은 CN타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멀리서 찍어서 작아보이는데 바로 앞에서 보면 정말 커서 압도돼요

[별첨1] 해외파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국제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redacted]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학교명	**궬프 대학교**
	파견시기	하계 단기	파견 기간	**2026.6.25-2026.7.25**
파견정보	수강과목개요	과목명	과목설명(간략)	
		Listening & Speaking	영어로 듣기와 말하기	
		Reading	영어로 된 글 읽기	
		Writing	영어로 글 쓰기	

체험 수기

Ⅰ.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궬프 대학교는 궬프에 위치해 있는 대학교이며, 토론토에서 버스를 통해 1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많거나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니며. 학교 또한 30분 정도면 가로지를 수 있는 크기 정도입니다.

2. 파견 전 절차

파견 전에 할 일은 항공권 예매와 준비물 챙기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 토론토에 잠시 머물다 가고, 주말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 있었어서 그 여행들을 위한 숙소와 항공권 예약과 준비물 지참을 했습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은 따로 진행할 필요 없이 반 배정 이후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반배정을 다시 받고 싶다면 프로그램 시작 1주 안에 담당부서로 가서 반 배정 시험을 다시 보고 반을 변경하면 됩니다.

기숙사의 경우, 5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의 형태이며 각 인원 당 하나의 방을 배정받습니다. 2층에 방 2개, 3층에 방 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날씨는 대체적으로 더운 편이나, 실내 에어컨이 상시 가동 중이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추가 담요가 필요합니다. 1층에 부엌과 부엌 도구들이 제공되나, 프라이팬과 냄비의 경우 오래되어 쓰기 불편할 수 있으므로 여유가 된다면 조리도구를 챙겨 가시거나 비치된 오븐만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가 전부 카펫이라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실내용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아는 바 없습니다.

Ⅱ.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과목은 총 4개이지만, 그 중 Listening과 Speaking은 묶어 진행하기에 3 과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Listening & Speaking, Reading, Writing의 경우, 과제의 차이 말고는 수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Writing과 Listening은 그 이름에 맞게 해당 활동을 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수업 내에서 조별 활동을 하며 회화 연습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이때 열심히 참여하면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나가거나 주말에 토론토를 가서 직접 생활을 하며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기 좋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화를 많이 까먹었었는데, 프로그램 이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학습 방법
수업 시간에 활동에 잘 참여하고, 과제를 하며 같은 방을 쓰는 룸메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해외 파견 연수의 장점이 해외 파견인만큼, 수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 바깥으로 나가 직접 부딪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Ⅲ.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햇빛이 매우 강하므로, 양산과 모자, 선글라스 등은 필수 지참입니다. 그러나 실내는 추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벼운 겉옷은 몇 개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어댑터와 110-220v의 전자용품을 잘 확인하고 챙겨야 캐나다에서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물가는 싼 편이 아니라, 마트에서 원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생활비 아끼기에 좋습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곁통, 통신 등)

의료와 은행은 이용해보지 않아서 알지 못합니다. 교통의 경우에는, 궬프 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학교에서 지급하므로 따로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론토나 엘로라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여행할 경우 교통편을 잘 비교하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와이파이는 학교 내 부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면 이심이나 로밍 등이 꼭 필요합니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저는 토론토, 뉴욕, 몬트리올을 방문하였습니다. 토론토는 버스로 당일치기로 방문할 수 있으며, 몬트리올은 VIA 기차를 이용하여 갈 수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주변 도시로 해밀턴과 엘로라 등이 있어서 저 말고 다른 학생들이 자주 방문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나이아가라 트립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단체로 나이아가라를 방문했습니다. 다소 짧은 시간 동안 구경할 수 있으며, 스케쥴대로 이동해야 하니, 더 오래 보고 싶으면 따로 이동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종류	내용	비용
연수 프로그램	신청	$200CAD
	학비	$3665CAD
비자	캐나다	$7CAD
	미국	₩63,919
여행자 보험	보험	₩68,310
항공	토론토-인천 왕복	₩2,638,300
	토론토-뉴욕 왕복	₩654,100
숙소	토론토 2박	₩519,368
	몬트리올 2박	₩243,440
	뉴욕 2박	$252
교통	몬트리올 기차	₩549,032
기타	쇼핑,식비, 관광 등	개인적 소비라 미공개
총(타 지역 여행 포함)	총 비용	₩12,730,380

Ⅳ.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어학 실력은 물론이고, 미주와 같은 해외에서 혼자 여행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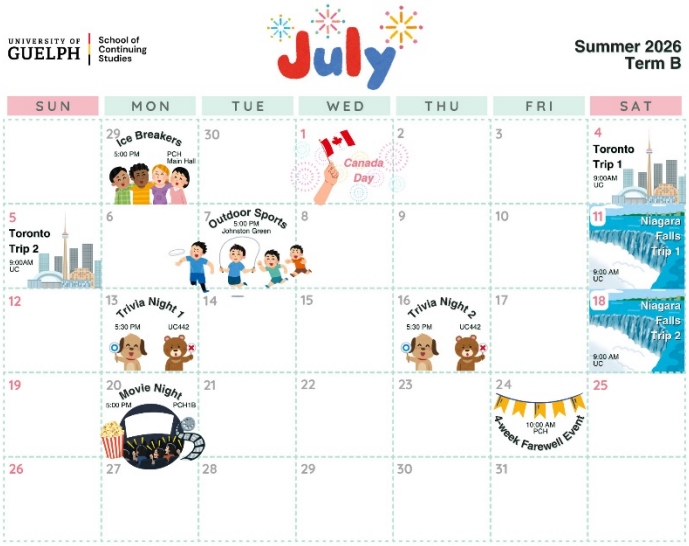
우선 남은 전공 공부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수를 통해 졸업 이후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두렵다고 가까운 나라를 가는 것보다 혼자서는 안 할 경험과 안 갈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타사항

Ⅴ.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학교 프로그램 운영 스케쥴

아이스 브레이킹